

"호암은 독창적 기업모델을 창조했다"

이데일리 입력 : 2010.02.10 10:04 / 수정 : 2010.02.10 11:11

호암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내외 석학 참석**"호암의 사업전개 과정이 한국경제·산업의 역사"****"호암, 韓·日·獨·美 종합..독창적 기업모델 창조"**

"호암은 한국의 유교주의, 일본식 경영시스템, 독일식 생산방식, 미국식 관리방식을 종합해 독창적인 기업모델을 창조했다"

"호암의 사업전개 과정이 곧 한국경제와 산업구조 전환의 역사"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국내외의 석학들은 호암의 발자취를 이같이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움을 열었다.

랑리 박 바흐조 소르본대 연구원과 도미닉 바흐조 소르본대 교수는 '유럽 경영사학의 관점에서 본 호암의 경영이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호암은 한국의 유교주의, 일본식 경영시스템, 독일식 생산방식, 미국식 관리방식을 종합해 독창적인 기업모델을 창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실천을 중시하는 사고, 조직을 통한 관리, 신뢰의 중시 등도 삼성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호암의 통솔력으로 삼성은 한국 대기업의 상징이자 표본이 됐다"고 강조했다.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는 호암의 인재경영에 대해 미쓰비시의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와 유사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호암의 인재 제일 경영이념이 오늘날 삼성의 문화로 정착됐다"며 "인재경영이 삼성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장진호 연세대 교수는 '한국 경영사에서 호암의 위치'라는 발표를 통해 "호암은 자신의 경영이념을 제도의 틀에 담아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독특한 경영체제를 구축했다"며 "호암의 사업전개 과정이 곧 한국경제와 산업구조 전환의 역사"라고 말했다.

송재용 서울대 교수는 "호암의 경영철학이 계승, 발전돼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무형자산과 핵심인재를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운 칸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집단과 신사업창출'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기업집단은 경기애 상관없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해 잠재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서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내외 석학들 외에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호암의 추억:결에서 본 호암 이병철 회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본인이 지켜봤던 호암의 생전 모습을 들려줬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본받아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의 경영과 경영학이 국제 학계의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